

가정의 달 “NO”... 5월은 “가난의 달”

고물가에 연이은 기념일 시민 부담 커져... 3인 한끼 식비 20만원 '홀쩍'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 전년비 3%↑ ...건강기능식품 등 상승률도 급증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연이은 기념일로 지출 부담이 커져 ‘가난의 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박재현(41·화정동)씨는 최근 5월 한 달 동안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당장 지난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내, 두 자녀와 광주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아 식비로 20여만 원을 지출했는데, 최근 수입은 줄어든 반면 어린이 날 지출과 다가오는 어버이날과 결혼기념일 등 큰 지출이 예상되는 기념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박씨는 “매년 5월만 되면 가정의 달이라며 주말

에는 가족 여행 일정을 잡고, 부모님을 비롯한 형제 자매 등과 식사자리를 갖는 일이 잦아 등 쟁쟁야 할 날들이 많다”며 “그렇다고 부모 자식 노릇은 해야 하니, 부부 생활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다. 5월은 가장 부담되는 한 달 중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직장인 장지수(여·34)씨 고민도 비슷하다. 장씨는 뻘뻘한 5월 중 기념일 지출에 대비해 2달 째 식비 등 생활비 지출을 줄여왔다.

장씨는 매년 어버이날을 기념해 선물 또는 용돈으로 100만원 가량을 지출해 왔는데, 5월 고정 지

출 부담이 커져다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씨는 “나에게 매년 5월은 ‘자린고비’의 달이다. 부모님, 동생 등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 지출로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는 금액이지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며 “매년 5월 큰 지출이 예상되다 보니 3월께부터 배달음식도 줄이고, 최대한 저녁 약속자리도 기피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다”고 말했다.

행복해야 할 5월 ‘가정의 달’이 서민들 사이에서 ‘가난의 달’로 불리고 있다.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이은 기념일에 투입되는 비용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0% 올라 전

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9%)보다 0.1%p 높았다.

떡거리 물가가 크게 뛰면서 외식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35개월째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기준 돼지고기는 전년 대비 3.1% 올랐고, 오리고기(4.0% ↑), 떡볶이(5.9% ↑), 피자(5.0% ↑) 등 외식 빈도가 높은 음식들의 물가 상승폭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폭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정의 달 선물로 선호받는 품목들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 선물로 자주 선택받는 유아동복 물가가 6.5% 올랐고, 아동화는 6.3%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겼다.

또 어버이날 단골 선물 품목인 건강기능식품은

전년 동기보다 8.7% 뛰었다.

경제상황이 좀체 개선되지 않으면서 최근 한 기업이 기념일 경비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비를 전년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중견기업이 주요 계열사 임직원 1070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관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가정의 달 예상 경비는 평균 79만6000원으로 지난해 동기(80만원)보다 4000원 줄었다.

설문 조사 응답자 중 가정의 달 지출비용 증가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는 ‘부모님 및 자녀 용돈’이 63.1%로 가장 높았고, ‘기념일 선물’(15.8%), ‘외식비 및 관광료’(12.1%), ‘교통비 및 숙박비’(6.9%), ‘기타’(2.1%) 순으로 답했다.

/장영민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판매·삼성전자로직텍 직원들이 삼성스토어 대리점에서 여름 에어컨 성수기를 맞아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성큼 다가온 성수기...삼성전자, 에어컨 판매·배송·서비스 강화

무풍에어컨 전문 매니저 상담도 31일까지 포인트 지급 등 혜택

삼성전자가 여름 에어컨 성수기를 맞아 판매와 배송,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편의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판매를 담당하는 삼성스토어에서는 시스템(천정형), 휴멀티(스탠드형·벽걸이형), 창문형 에어컨 등 다양한 유형의 무풍에어컨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 매니저를 두고 1대 1 상담으로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제품을 추천한다.

‘2024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 신제품의 음성인식, 부재 절전, 부재 건조 등의 인공지능(AI) 기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모바일 위치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 AI 쾌적 모드를 작동하는 ‘웰컴 에어 케어’ 기능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에어컨 배송을 담당하는 삼성전자로직텍은 고객이 에어컨을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설치할 수 있도록 전국에 구축된 실습장 22곳에서 실제 제품을 활용한 제품 설치 교육으로 숙련도를 높였다. 고객 응대 교육도 강화한다.

또 에어컨 설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 지원단’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전문 서비스 엔지니어 외에도 기술감사, 사무직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에어컨 기술 역량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이수한 인력은 에어컨 서비스 신청이 가장 많은 6~8월에 투입될 예정이며, 지난해보다 20% 이상 많은 인력을 고객 응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비스 엔지니어들의 작업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수리 안전 보조 인력’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수리 안전 보조 인력’은 엔지니어와 동행해 서비스 현장에서 작업 안전성 확보, 수리 작업 보조 등의 역할을 한다.

고객 가정에 서비스 엔지니어가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제품을 점검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에어컨 원격 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고객이 에어컨 구입을 고민하며 매장에 방문하는 순간부터 제품을 배송받고 사용하면서 수리·점검 등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까지 모든 과정에서 더 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국내 누적 1000만대를 돌파한 무풍에어컨의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한편, 삼성스토어에서 오는 31일까지 에어컨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수분·비타민 풍부한 오이로 건강 챙기세요”

농협 광주본부, 오이데이 성료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3일 평동농협과 함께 금요직거래장터에서 오이 소비 촉진을 위한 오이데이(5월2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 2002년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오이데이’를 맞아, 오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철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이현호 본부장, 남택승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금요직거래장터를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오이 무료나눔행사와 50% 가격할인 판매를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이는 많은 수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숙취와 갈증 해소에 효과가 있으며, 우리 몸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디톡스 효과와 피부미용 등 다양한 효능으로 제철을 맞은 오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호 본부장은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에 좋은 오이 많이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라며 “농협광주본부는 데이마케팅 등을 활용한 제철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융합산업진흥원,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 선정

산업부, 5년간 62억원 지원

조선대·인하대 등과 인력 양성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진흥회는 산업부에서 5년간 총 62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레이저 기술 전문인력양성’ 과제에 선정돼 조선대·부산대·인하대와 함께 관련 인력을 양성하게 됐다.

진흥회를 비롯한 과제 참여 기관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레이저 및 광학 분야 석박사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레이저·광

학 특화분야 석박사 인력양성 270명, 취업률 82%를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산학 프로젝트를 실시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레이저 및 광학 기술은 모든 산업에서 핵심적인 기술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인력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미래 먹거리 과제 발굴 기획 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